

《인간 연습》 출간한 소설가 조정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인간을 ‘연습’ 하다



《태백산맥》
《아리랑》《한강》
으로 우리 민족
의 한과 절고를
풀어냈던 소설가
조정래 씨가 4년
만에 《인간 연
습》으로 돌아왔
다. 예전의 대작
들과 비교하면
소품 정도의 볼
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

해설을 덧붙인 문학평론가 황광수의 글에서 분단문학, 통일문학 이후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역사소설의 서술기법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 대한 성찰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의 말 속에는 우리 민족의 분단은 워낙 복잡한 역사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들의 시각을 통해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어렵다는 또 하나의 성찰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204쪽).

실제로 조정래 씨는 “통일문학 이후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 사랑, 믿음 같은 주제를 접근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워놓은 20세기, 그 바탕에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월남전 등으로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인간은 그만큼 미완성적 존재이고 불확실한 존재”임을 지난 100년 간 우리 민족이 몸소 체험했고, 아직도 그 불확실한 시대를 ‘분단’이라는 업보를 지고 우린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조정래, 그에겐 있어 보인다. ‘저자의 말’로 돌아가 보자.

“인간은 지나간 세월에 걸쳐서 그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시도해서, 더러 성공도 하고, 많이는 실패하면서 또 새롭게 모색하고 시도하고... 그 끝없는 되풀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한 ‘연습’이 아닐까 싶다”(220쪽).

황광수의 해설 제목처럼 조정래 씨는 이제 ‘이념형 인간’에 종말을 고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듭나기’를 시도하고 있다. 《태백산맥》은 물론이요, 《아리랑》과 《한강》에서도, 작가 조정래 씨의 인간에 대한 애정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온 주제임에 틀림없다. 이태을

연습》이 담고 있는 함의는 과거 작품들과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다. 그의 표현을 빌면 “사회주의 몰락에 대한 인류사적 모색과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 분단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짧은 지면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문학은 이제 마무리 지으려 한다’

“내 문학에서 분단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소설을 지었다.”

‘작가의 말’ 중에 담긴 조정래 씨의 자기 고백이다. 실제로 그는 “이 책이 내 소설에서 분단문학, 통일문학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조정래 문학의 본령(本領)이 분단과 통일, 그것에서 파생된 우리 민족 근현대사의 굴곡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 혹은 충격적인 선언 이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정래 씨가 생각하는 통일문학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념형 인간의 종말과 거듭나기’라는 제목으로



로기란 “결국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며 인간들이 만들어낸 소산임을 생각할 때” 결국 조정래 씨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이데올로기 역시 인간에 대한 천착과, 이음동의어인 셈이다. 《인간 연습》은 이데올로기에서 인간으로 무게의 추를 옮겨 놓는 일종의 분수령이자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조정래 문학의 새로운 시발점인 것이다.

‘말이 통하고, 정을 확인했으니 통일은 필연적이다’

《인간 연습》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는 만남으로 비롯된다. 그것이 정으로 이어지고, 다시 깊은 신뢰로 이어진다. ‘두 송이 꽃’으로 표현된 경희와 기준 남매와의 만남에서 시작된 인간에 대한 정은, 주인공 윤혁이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주요 동기로 작용한다. ‘사상의 조국’ 소련의 붕괴에 충격 받아 뇌졸중으로 유명을 달리한 동료 박동건도 “이런 아이들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된 것을 보면, 분명 작가 조정래는 더불어 사는 세상,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굳게 간직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주인공 윤혁을 향한 두 남매의 마음을 일러 “봄벌처럼 따스하고 포근한 정”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건전한 보수와 생산적 진보를 조화시켜 좌우의 날개로 균형을 잡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진보적 시민단체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감옥이 이어준 인연 강민규와의 만남도 그렇고, 자신이 쓴 수기를 통해 인연을 맺는 보육원 최선숙 원장과의 만남이 또한 그러하다. 최 원장과의 만남은 결국 윤혁의 삶을 천진한 어린이들이 일구어가는 ‘인간의 꽃밭’으로 인도했고, 윤혁은 그곳에서 ‘행복’의 의미를 표나지 않게 배우게 된다. 인간 이성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성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인

간 본연’을 사랑하겠다는 조정래 씨의 다짐이 수없이 교차하는 대목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정래 씨는 통일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만나야 정들지. 이웃사촌이라고 하잖아요.” 핵문제로 남북이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그는 통일을 낙관한다.

“2002년 아시안게임 때 북한 ‘이쁜이 응원단’과 남한 시민들이 서먹함을 벗고 어우러지는 데 단 사흘 걸렸어요. 이름을 묻는 사람에게 수줍게 ‘순이’라고 창문에 썼던, ‘결혼합시다’라는 농담에 더 수줍은 웃음을 터뜨렸던 그들의 어울림은, 60년 넘게 권력자들이 쌓아놓은 이데올로기를 맥없이 무너뜨린 순간이죠. 말이 통하고, 정을 확인했으니 통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작가의 길’ 그리고 ‘인간의 길’

《태백산맥》《아리랑》《한강》을 따라 지구를 여섯 바퀴 넘게 돌았다는 조정래 씨는 인터뷰 말미에 대학 시절부터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작가의 길에 대해 들려주었다.

“인간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없지만 인간답게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작가의 역할입니다. 시대의 모든 모순과 갈등, 아픔을 대중을 대신해 글로 써서 ‘시대의 산소’를 넣어주고 ‘시대의 스승’으로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작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조정래 씨는 오늘도 모순이 가득한 시대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작가의 길을 연습한다. 그리고 역시나 ‘인간의 길’을 연습한다. 《인간 연습》모두에 남긴 글은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경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는 인간의 삶, 그것은 결국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연습’이다.” **▶▶**

취재_장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